

2026/03/05 (목) 회의록

(1) 1차 정기 회의 성원

재적 인원 24명 중 출석 인원 23명으로,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여 회의를 시작함.

(2) 논의 안건 - 신입생 OT 평가

2026년 학교와 학과의 첫 행사인 만큼 만족한 부분도 있었으나, 다소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음.

(의견1) 음악학과 학생회장

지원금이 세부적으로 계획되어있지 않고, 날짜가 지정되지 않아 OT 하루 전 날에 입금을 해주셔서 다소 혼란스러웠다. 다음에는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진행하였으면 좋겠다.

(의견2) 환경융합학과 학생회장

장소 대관할 때 전대 비상대책위원회에게 말을 한 뒤,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학교 측으로 전달이 되지 않았는지 해당 강의실이 공사 때문에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른 과 또한 공사 때문에 운영이 부드럽지 못하였다.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다.

(의견3) 광고홍보학과 학생회장

지원금 100만 원은 감사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용하라는 게 학회비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사실인데 말이 안된다 생각한다. 차라리 100만 원 이하를 쓰고, 남은 금액 환불 가능하게 진행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의견4) 재활상담학과 학생회장

학교 측에서 원래 정해두었던 인당 다과비, 회식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달해 주지 않으셨고 조교님을 통해서 전달 받았다. 추후에는 신경 쓰지 말고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어떻게든 맞추었지만 공지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다음 행사에는 공지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의견5) 실용음악학과 학생회장

기획안 작성 관련한 처음 공지를 해주셨을 때에는 정시인원을 예상하여서 기획안 마무리하라고 하셔서 총 인원을 계산해서 상품 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의견6) 사회복지학과 학생회장

자리 배치도를 받았을 때 신입생 정원 인원이 정해져 있고, 그 정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도 1~2명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전달 받았는데 배치도에 작성되어있는 정원보다 8~9명이나 많아서 준비한 상품이 부족할 뻔하였다. 심지어 학생들이 자리가 없어 관람하지 못하였기에 불편하였다. 자리가 부족할 경우 타과 자리에 앉으라고 전달 받았는데 타과도 자리가 부족하여서 어려움이 있었다. 학과 자리에 교수님 자리도 주셨는데 차라리 교수석을 학생회가 앉을 수 있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추후 행사에는 인원 파악을 확실하게 하여서 배치도를 잘 짜주셨으면 좋겠다.

(2) 논의 - 개강총회 및 MT 일정 공유 요청 비상대책위원장

회의 종료 후 중앙운영위원회 단체 특방에 공지를 올릴 예정이니, 요청 사항을 댓글로 작성해 주길 바람.

(질문1) 패션디자인학과 학생회장

MT 일정을 짜고 있는데, 학과 일정과 맞지 않고 펜션을 못정한 상태인데 미정으로 작성하여도 되는가?

(답변1) 비상대책위원장

네, 추후 정해지면 연락바람.

(질문2) 음악학과 학생회장

아직 일시가 확정 되지 않아서, 수정이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보내드려도 되는가? 아니면 기존에 생각해 두었던 기간으로 작성하면 되는가?

(답변2) 비상대책위원장

네, 기존에 생각해 두었던 기간으로 작성하고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연락 바람.

(질문3) 연극영화학과 부학생회장

현재 학생회장님이 사정이 생겨 회의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공지사항에 어떤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는가?

(답변3) 비상대책위원장

개강총회는 일시, 장소, 특이사항 작성, MT는 일시, 장소, 이동수단, 특이사항 작성 바람.

비상대책위원장: 추가 의의가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음